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 강원도 미술여행

“첫날은 땀에 젖고, 둘째 날은 비에 젖고, 지금은 추억에 젖는다..”

본회는 첫 미술여행으로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강원도 미술여행'을 개최했다. 이번 여행의 테마는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의 그림 속 실풍경을 찾아가는 것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강원도 속초 일원을 탐방했다. 1일 차에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고성 통일전망대와 청간정을 거쳐 속초에 머무른 뒤, 2일 차에는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 의상대와 흥련암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여행 중에는 진부령의 황태구이 정식, 속초의 물회와 오징어순대, 설악산의 도포리묵과 산채비빔밥 등 틈틈이 맛집투어도 함께 해 즐거움을 더하게 했다. "첫날은 날이 맑아 즐겁게 여행을 했고 둘째 날은 비가 왔지만 설악산의 경치가 운무로 인해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 했다"며 여행한 동문 모두가 행복해 했다. 황현숙(66응미) 동문은 여행후기를 통해 "36년 만에 처음으로 동문들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던 제자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후배들, 명예회원과의 뜻밖의 조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만남을 통해 사소한 인생사를 나누고 그들의 훌륭한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저 깊이 묻어두었던 추억을 켜켜이 들춰보는 듯 의미있고 보



람있는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동창회가 수 년 동안 동문을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창의력과 동문의 협력이 어우러져서 추구하는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즐거운 만남을 위해 무척 애쓴 모든 예쁜 사람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이정연(71회화) 동문은 '미국 가기 전 함께 크로키 했던 제가 무척 내심 좋아했던 예쁜 선배님을 만나 많은 이야기 나누고 행복했어요!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이번 미술여행을 위해 애써주셨던 회장님 이하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훌륭한 선배님들 만나 보며 배우고 느낀 점들 삶의 과정을 통해 잘 마음에 담겠습니다. 또 멋지고 아름다운 후배들과 이렇게 교류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동입니다"라고 여행의 감동을 전했다. 한편 이번 여행에는 도슨트 김명은(17동양), 스태프 박도현(16디자인), 황시연(17서양) 등 본회 간사들이 함께 해 수고했다. 본회는 여행 후 참여한 동문이 여행에서 받은 영감을 나누는 전시회 '이시동시(異時同視/가칭)'를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양한 테마의 미술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행후기-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 동문'

박혜령(74회화)



가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날 서울대미대동창회 권영걸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문 27명은 여행을 다녀왔다.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라는 테마를 갖고 떠나는 강원도 속초 일원 여행이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버스에 오른 우리는 압구정 주차장을 출발했다. 이 여행은 강원도에 위치한 금강산, 해금강, 청간정, 낙산사의 옛 그림들과 2023년의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하며 답사하고, 여행후 전시회를 염두에 둔 미술여행이다.



강원도 진부령에 도착한 일행은 황태의 고장답게 황태구이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첫 일정으로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하늘도 축복하듯 짙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통일전망타워에 오른 우리는 육안으로 북녘땅을 볼 수 있었다. 아스라한 금강산과 눈부신 모래 해변 저 멀리 해금강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실루엣처럼 보이는 금강산이지만 그 실체를 접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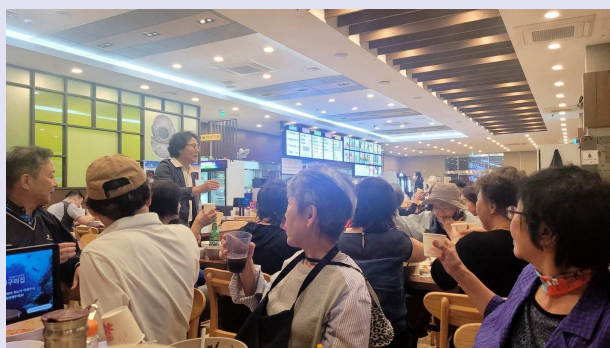
가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날 서울대미대동창회 권영걸 회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문 27명은 여행을 다녀왔다. '그림 속 풍경을 찾아서'라는 테마를 갖고 떠나는 강원도 속초 일원 여행이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버스에 오른 우리는 압구정 주차장을 출발했다. 이 여행은 강원도에 위치한 금강산, 해금강, 청간정, 낙산사의 옛 그림들과 2023년의 현재의 모습들을 비교하며 답사하고, 여행후 전시회를 염두에 둔 미술여행이다.

강원도 진부령에 도착한 일행은 황태의 고장답게 황태구이정식으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첫 일정으로 고성군 현내면에 위치한 통일전망대로 향했다. 하늘도 축복하듯 짙하고 맑은 날씨 덕분에 통일전망타워에 오른 우리는 육안으로 북녘땅을 볼 수 있었다. 아스라한 금강산과 눈부신 모래 해변 저 멀리 해금강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실루엣처럼 보이는 금강산이지만 그 실체를 접했다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다음 목적지인 고성군 토성면 청간정을 찾았다. 청간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해설사로부터 자세한 역사와 고미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료관을 나온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현판과 최규하 대통령의 휘호를 보며 청간정 안과 밖을 자세히 둘러보았다.



호텔에 짐을 풀고 속초 봉포머구리집에서 오징어순대, 전복물회 등으로 식사하며 몇몇 분이 제안하는 재미있고 기발한 건배사로 만찬을 시작하였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가 숙소인 씨크루즈호텔속초에 도착하자 헤어지기 섭섭한 동문들이 모였다. 청초호가 내려다보이는 호텔 3층 테라스의 넓은 공간에 앉아서 속초 야경을 보며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얘기들을 나누었다. 맥주파티를 하며 동문엔티의 밤은 더욱 무르익어 갔다.



아침이다. 모처럼 푹 자고 일어나니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늘은 하루 종일 비를 뿌릴 듯한 기세이다.

호텔 부페로 소식을 마친 일행은 느긋하게 마지막 날 일정을 위해 출발하였다. 설악산에 도착한 뒤 신흥사유물전시관을 둘러보았다. 즉석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수목담채화 같은 설악산을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나와 각자 표를 구하고 권금성 케이블카에 올랐다. 굽이굽이 솟털 같은 비구름이 낮게 드리운 설악산 자락을 보며 환호했다. 그 광경들은 말 그대로 진경산수화였다.





그리고는 신흥사를 답사했다. 오래 전에 다녀왔던 신흥사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잘 다듬어진 진입로는 깨끗했고 아름다운 아치형 석교들이 내리는 빗소리, 계곡물 소리와 어우러져 더욱 운치 있게 보였다. 신흥사에 다녀온 우리는 설악산 다래정에서 산채비빔밥과 파전, 도토리묵을 먹었다. 비 오는 날은 막걸리 파전이라고 했던가! 막걸리 한잔을 곁들이자 몸과 마음이 훈훈해졌다. 마지막 일정을 위해 낙산사와 의상대, 홍련암을 향해 버스는 출발했

다. 몇 년 전 큰 화재 뒤에 처음 찾은 낙산사는 깨끗하게 복구가 되어 있는 듯했다. 우산을 쓰고 빗속을 헤치며 찾아간 곳마다 동해의 절경이 펼쳐졌다. 이렇게 빗속의 둘째 날 여정도 끝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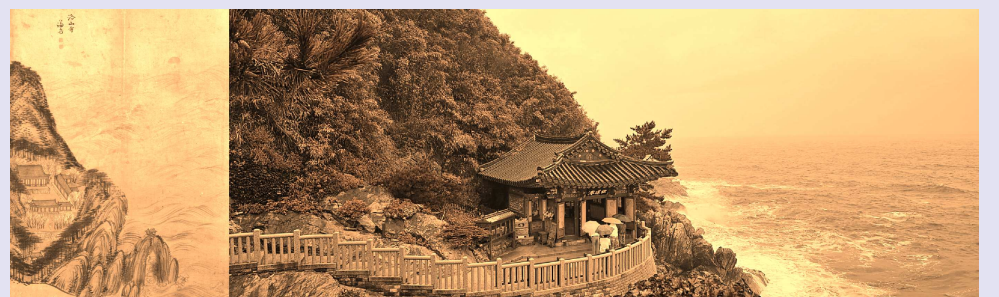


여행만큼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 일도 드물다는 권영걸 회장님 말씀에 공감한다. 일행 중에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한울회 선후배 회원들도 꽤 많았고 처음 만난 선후배들도 많았다. 우리는 오가는 버스 안에서 시간을 활용해서 알찬 친교를 했다. 앞자리부터 마이크를 돌려가며 입학 연도, 전공, 작업 이야기, 하는 일 등 자기소개를 했다. 순서가 지나갈수록 열기가 더해져

진지한 이야기들을 하였다. 한 순배 돌아가는 동안 버스는 제 갈 길과 휴식을 번갈아 가졌다. 저녁이 다 되어 숙소에 이를 때까지 자기소개 릴레이는 이어졌다. 그렇게 소통하고 나니 저녁식사 자리가 더 화기애애해졌다. 다음날 상경 길에서는 회장님께 드리는 한마디 릴레이가 이어졌다. 모두 권영걸 회장님께 존경과 본인들의 당부 말씀을 드렸다. 종착지인 압구정에 다 와서야 릴레이가 끝났다.



언젠가 여행이 즐거운 것은 과거와 미래를 잠깐 잊고 현재의 나와 새로운 여행지에 집중할 수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나에 집중하는 여행이 즐거운데 거기에 좋은 우리 동문들이 함께했기에 이번 여행은 더욱 즐거웠다. 초가을의 행복을 선물해 준 동문 가을여행 준비 임원들과 예쁜 간사님들 그리고 함께해 준 일행들에게도 감사한다. 2023. 9. 21.



모교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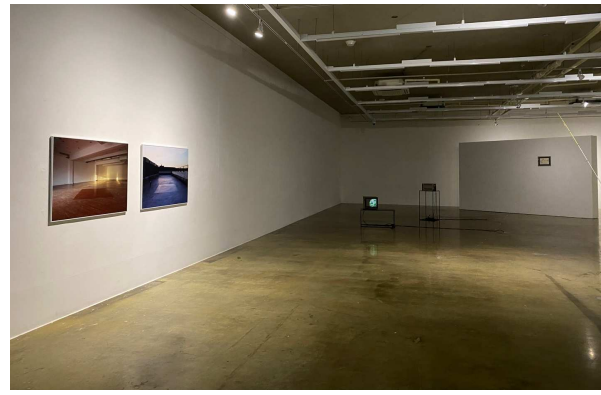
졸업하면 뭐할래?

모교는 지난 9월 27일 저녁 7시부터 10시 까지 '졸업하면 뭐할래?' 진로특강 시리즈 5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로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시각예술작가로 활동하는 이은실(01동양), 시각예술 콜렉티브 업체eobchae(황희, 김나희, 오천석)가 참여한다.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번 강연에서 이동문은 '전업 작가로 살아가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전업 작가가 된 계기와 작가로서 살아남기 위해 했던 노력, 일련의 과정을 나눴다. 황희 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3인으로 구성된 콜렉티브 '업체eobchae'로 활동하고 있다. 오디오-비주얼 프로덕션 그룹으로 2016년 결성됐다. 네트워크 시스템, 코딩·프로그래밍, 유사현실 기술, 공간과 사운드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들은 공동의 작업에서 장기적인 타임라인으로 프로젝트를 기획, 추진하는 힘을 발휘해 왔다. 업체eobchae는 미래에 대한 공상 과학의 세계관을 현재로 현실화하는 매체미학의 가능성을 확인시키며 기술과 사회에 대해 비평하는 예술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Ask me anything, 업체eobchae'를 주제로 과거의 자신의 입장으로 돌아가 현재의 자신들에게 궁금했을 법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하면 뭐할래?' 시리즈는 모교와 조형연구소가 주관하고, ZOOM을 통한 비대면 강의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모교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우석갤러리 전시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유지원 초청큐레이터 기획 단체전 '바다가 집이라면 향수병은 다름 아닌 멀미'가 지난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이 전시는 이동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참여작가 서제만, 조수민, gxu(강지수, 박사과정)와 함께 상시 이동이 삶의 양



식이 된 오늘날 현실과 이로부 터 전개되는 적응-정착하고자 하는 본능과 떠나고자 하는 충동을 살펴본다. gxu는 여러 작업에 걸쳐 별을 만들거나 그렸다. 별은 과거 시간과 방향을 읽기 위해 활용된 한편 여섯 획으로 만든 별 그림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별'을 뜻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부표로 작동한다. 조수민은 주어진 공간을 청소하거나 보수함으로써 장소와 주체가 맺는 관계를 탐구한다. 2020년에 시작된 'Home' 연작은 얼마간 해외 생활 후 귀국하여 마주한 낯선 집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몸과 마음의 노동을 탐색한다. 서제만은 타국에서 생활하며 어떤 장소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다. '여기의 물'(2019)은 낯선 존재를 은유하는 괴물 형상의 가면을 쓰고, 그의 시선을 통해 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 묻는다. 출신지와 무관하게 식물이 한곳의 물을 먹고 자란다면 그곳에 속하지만, 왜 인간은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지내더라도 그곳의 사람이 될 수 없는가? 세 작가의 작업은 뚜렷한 구별 없이 한 공간을 동시에 점유한다. 머지않아 이들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약속된 기간만큼 펼쳐지는 한시적인 공존은 흔들리는 땅 위에 임의의 지점을 '집'이라 부르고, 아끼는 마음을 주고, 하지만 이내 미워하며 떠나고자 몸부림치기를 왕복하는 추동을 펼친다.

9월의 전시



지난 9월 우석갤러리에서는 초청큐레이터 기획전 이외에 2개의 전시가 더 열렸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정지현(석23조소)의 개인전 '패닉룸'이 개최되었다. 정동문은 모교 대학원의 석사 과정에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서성규, 박창국, 김태현, 정재민, 정다운, 이동우, 신윤주 7인이 참여한 단체전 '옆결음'이 열렸다. 전시는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옆결음은 각자의 습관, 고정관념, 유전 등을 되짚음으로써 벗어던지려는 시도라고 전시서문에서 밝혔다.

My Own Ring

서울대미대동창회 산하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운영하는 에스아트몰에서 'ACCESSORY' 카테고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조금씩 다르게 제작되는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반지를 소장해보세요.

S-ARTMALL

서울대 동문 특별할인 제공
총동창회몰 'Mall SNUA' 입점(브랜드관 S-ARTMALL)

(사)에스아트플랫폼 회원신청 및 작품등록에 대한 문의
02-877-8065 / sartmall.contact@gmail.com

sartmall.com

서울대소식



제77회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총장 유홍림)는 지난 8월 29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제77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78명, 석사 1200명, 박사 656명, 총 2834명에게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했다. 유홍림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낯선 시간은 앞으로 학교 밖에서 만날 다양한 기회와 위기의 순간에 지혜와 용기를 불러일으킬 소중한 자산”이라며 “서울대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미래를 헤쳐나가는 힘으로 키울 것”을 강조했다. 이번 수여식에는 생태학의 선구자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에코과학부)가 축사 연사로, 졸업생 대표 연설자로는 다양한 봉사·공헌활동 참여와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 두빈스키 니나(독일, 정치외교학부)가 선정되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개최



지난 9월 11일 자연대 대형강의동(28동)에서 2023년 하반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열렸다. 이날 비례대의원 도입, 자치언론 결산 내역 심사, 학생회비 배분 방식 등이 논의됐다. 먼저 비례대의원 도입 찬반투표에서 약 40.5%의 대의원은 찬성을, 약 49.4%의 대의원은 반대했다. 이후 자치언론 결산 내역 심사에 관해서는 개정안에서는 학내 자치언론은 총학생회의 산하기구가 아닐뿐더러 그 특성상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심의 절차가 삭제됐다. 마지막으로 학생회비 배분 비율 조정안은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은 찬성 25표, 반대 4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조재현(20자유전공학부) 총학생회장은 “전부개정안과 관련된 논의는 추후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속행하거나, 관련 논의를 정리해 차기 총학에 인수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을축제 온더보드 개최



서울대 가을축제 'SNUFESTIVAL: 온더보드x베스트슬립'이 지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잔디광장을 비롯한 서울대 일대에서 열렸다. 축제 이름 '온 더 보드'는 국내 최초의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에서 착안해, 서울대 학생들이 잔디광장이라는 네모난 보드판 위에서 여정을 떠난다는 설정을 담았다. 12일과 13일은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단체게임, 캠핑 등이 진행되었고 14일에는 풍산마당에서 폐막제가 열렸다. 폐막제 무대는 학내 동아리의 공연과 댄스 토너먼트로 꾸며졌고 마지막 순서로 아이돌 '뉴진스'와 '정용화'의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외에도 방탈출 부스 '무인도: 15분 동안 이곳에 갇힘', 미술작품 전시 부스 '아트스트리트', 음식 판매 부스 '푸

드스트리트' 등 재학생이 운영하는 마켓 전시 및 게임을 축제기간에 즐길 수 있었다. 축제 부스에 참여하면 인증 스탬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인증스탬프로 메인스폰서 베스트슬립의 경품 행사 '리오의 세계일주'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2023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가 지난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관악, 연건, 시흥, 평창캠퍼스 등 멀티 캠퍼스와 지역사회



내 관악아트홀에서 시낭송회, 미술전시, 학생 공연, 지역사회 협업 공연 등 총 78개의 공연과 전시로 채워졌다. 미술분과 작품도 관악, 연건, 시흥캠퍼스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서울대는 2023년 예술주간 행사를 통해 각 캠퍼스 간 문화·예술 역량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화·예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정 이종환회장 별세



지난 9월 13일 관정 이종환 회장이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고인은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을 설립하며 인재 육성에 기여했고 2014년 서울대중앙도서관 관정관 개관을 위해 600억원을 기부했다. 중앙도서관은 이회장을 기리기 위해 관정관 1층에 추모공간을 마련했다.

'스누인의 연구일지' 개최

서울대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8월 25일 10시 30분부터 중앙도서관 관정관 양두석홀에서 제1회 선배 연구자 특강 '스누인의 연구일지'를 개최했다. '스누인의 연구일지'는 전문 연구역량과 경험을 지닌 서울대학교 졸업 연구자를 강연자로 초청하여 학문 주제 분야별 논문작성법과 학습법 등을 공유하는 행사이다. 올해는 공학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과학, 융복합, 도시환경 분야 선배 연구자를 초청하여 총 4회의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도서대출서비스 확대

서울대중앙도서관이 도서대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지난 9월 4일에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9월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내 구성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도서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고 중앙도서관은 밝혔다. 확대된 서비스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서비스 개정에는 크게 세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 신분별 대출 책 수가 2배 확대됐다. 둘째, 예약도서 책 수가 5책에서 10책으로 확대되었다. 셋째, 대출연장 기간이 대출기간의 5배에서 3배로 조정된다.

서울대미술관 전시



자아 아래 기억, 자아 위 꿈

- 전시기간: 2023년 9월 27일~11월 26일
- 큐레이터와의 전시관람: 2023년 9월 27일 14:00-15:00
-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가비 무료
- 문 의: 02-880-9504

2023. 10. 11. ~ 11. 26.

서울대학교미술관

Veritas lux. Misa

◆ 개교77주년 기념 야외 설치전 -선우향◆

진리의 빛, 예술로 환히 밝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 66사회사업)는 지난 8월 24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장학금수여식을 열었다. 이번 학기에 학부생 651명, 석사 48명, 박사 19명, 석박사 통합 1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총동창회는 이로써 올해 1420명에게 총 3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 가운데는 국제학생(외국인 유학생)도 있다. 이날 관악회 김종섭 이사장과 관악회 장학금을 출연한 동문 및 관계자 16명, 이경형 관악회 상임이사, 김인규 총동창회 수석부 회장, 모교 유홍림 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유준희 학생처장, 지의규 학생부처장이 수여식에서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김종섭 이사장은 "강의실과 도서관에서만 4년을 보낸다면 반쪽짜리 대학생이다. 나머지 반은 취미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며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홍규 미대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해 홍상욱 성지출판 대표, 오진규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장, 이자행 여사와 정홍일 흥인 대표, 김리훈 엠코테크놀로 지코리아 전무 등이 참석했다.

나눔골프대회 개최



총동창회와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사장 유홍림)이 지난 8월 28일 경기도 여주 렉스필드CC에서 나눔골프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우엽(70 체육교육)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팔을 걷어붙여 동문과 동문 지인 100여 명을 초대했다. 김종섭 회장은 "유홍림 모교 총장 취임 후 발전기금이 발전재단으로 개칭했다. 임기 동안 좋은 업적 많이 남기실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했으면 좋겠다"며 앞장서서 1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이날 기부 약정 금액은 총 2억3250만원에 달했다. 이날 나눔골프대회는 기계공학과 56학번 공대식 동문부터 체육교육과 09학번 김영웅·정규형 동문까지 세대를 초월하는 대화합의 장이었다. 딸 김상임(84기약) 동문과 함께 참가한 변주선(60영어교육) 상임부회장은 "부슬비 그치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산의 경관이 아름다웠다.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라운딩 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골프공과 티셔츠, 달걀, 바디워시 등 다양한 기념품을 선물했다.

ESG의 과거, 현재와 미래



지난 8월 23일에 마포구 장학빌딩에서 열린 수요특강에서 정준혁(96법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ESG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ESG는 투자자와 기업의 의사 결정에 있어 전통적으로 고려해온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비재무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다. ESG가 최근 중요개념으로 급부상한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SG 요소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정교수는 설명한다. ESG가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된 미국을 중심으로 반감이 늘어나고 있으며 'ESG가 과연 환경,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가란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으나 ESG가 '일시적 열풍이 아닌 경영과 투자의 근본적인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은' 현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기업이라면 글로벌 공급망의 ESG 기준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정교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다양한 법률분쟁을 언급하며 "ESG경영이 트렌드라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기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고 조언하며 강의를 마쳤다.

관악경제인회 조찬포럼



관악경제인회가 지난 9월 7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2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기후위기 시대와 그린 빅뱅, First Korea'를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바이오, 기후, 디지털, 배터리, 전기차, 친환경 조선, 차세대 원전 등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모두 녹색 산업과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여기 계신 동문 기업인 여러분들도 녹색 산업이 경제 성장의 중심이 되는 '그린빅뱅'을 일으켜 나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탄소 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키지 못할 약속보단 하나씩 실천하며 축적해 가는 '책임 있는 실천',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예측 가능성과 계산 가능성을 높이는 '질서 있는 전환', 이념에 치우친 탈원전 병폐를 적극 시정하는 '혁신 주도 전진'이라는 정부의 핵심 개념 세 가지를 소개했다.

홈커밍데이



총동창회 연례행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홈커밍데이가 오는 10월 15일 개교기념일에 11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 내 버들골과 풍산마당에서 열린다. 올해 홈커밍데이는 총학생회 임원 12명이 동문들의 참가 접수를 확인할 뿐 아니라 재학생들이 전면에서 행사를 꾸린다. 예년과 다름없이 버들골은 동문과 동문 가족들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이벤트 존으로 활용된다. 또한 순수미술 '미동(美動)', 환경보호 '씨알', 천체관측 'AAA', 사진 촬영 '영상' 등 각 동아리의 재학생들이 버들골에 부스를 마련, 동문과 동문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코너를 개설할 예정이다. 버들골 옆 풍산마당에서는 모교 응원단과 동문 합창단, 교수합창단이 풍성하고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음대가 주관하는 '관악 합주'를 통해 격조 높은 클래식 음악을 선사할 뿐 아니라 농생대 동문 밴드 '샌드페블즈'가 신나는 대중음악을 들려준다. 공식 행사에 앞서 캠퍼스 자유 탐방 땀 지난해 개방한 박물관, 규장각, 미술관에 더해 천체투영관, 중앙도서관이 추가 개방되며 재학생 해설사를 배치함으로써 더욱 알찬 관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수요특강

- 일 시 : 10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
- 주 제 : 생성형 AI의 현황과 주요 이슈
- 참가신청: [행사명,성함,단과대학(과정명),휴대전화번호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 1599-7704(전화수신불가), 팩스 02-703-0755,
이메일 member@snu.ac.kr
- 참가비 : 2만원(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행사명과 성함을 함께 기재(예:홍길동10월수요)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학번·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9.1-25)-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안영나(80회화)
- 일 반 회비** 김중철(88산미) 손석민(17디자인) 유부강(61회화) 윤상령(77응미) 이승현(01디자인) 이영애(66응미) 하진(91서양)
- 평 생 회비** 이은규(98디자인)
- 광고후원금** 디팩 이한호 319,000원 박재호(59회화) 20만원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20만원
한국인도현대작가교류회 20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옥상(68회화) 모친상

•빈소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9월 26일(화) 오후 12:30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유튜브에서 동창회소식 보세요~

본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SNU Art Alumn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동창회 행사를 기록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https://youtube.com/@snuartalumni?si=8-bOqTTNecWwqOI2>

휴대폰으로 소식을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단체·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링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의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호	가로	BOX 가격표(cm/원)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세로		세로		세로		사이즈	가격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KAN 칸 김유숙(87서양) 대표

본지는 미술품 관리전문회사 KAN 대표 김유숙 동문을 인터뷰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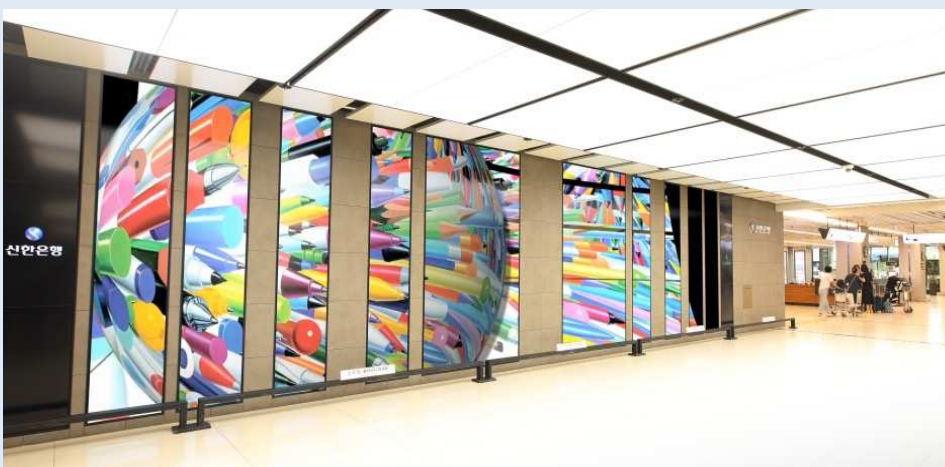
KAN을 소개한다면?



저희 회사는 국내 유일의 미술품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가장 주력 사업은 기업, 기관이 보유한 미술품의 상시적인 관리이고,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여러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주로 신축 건물의 미술작품이나 호텔, 정부기관, 사옥 등 건물 전체의 아트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서 설치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즐겨하는 일입니다. 회화, 조각, 영상 등 다양한 분야가 필요한 일입니다.

미술품 관리라는 것은 2001년 한국은행 소장품을 접하면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당시 한국은행에서는 박물관 및 갤러리 개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는 갤러리 개관에 필요한 공간기획, 3회의 전시 기획과 운영을 진행하면서 미술품이 판매 유통 과정 뿐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이후 2011년도에 신한은행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신한금융그룹 미술품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 (주)NC소프트 등의 미술품을 조사, 감정하고 상시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역의 미술작품 5,000여 점을 전수조사 하였고, 현재까지 저희가 관리하는 미술작품이 만점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아트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저희가 'ARTMP'라고 특허를 낸 개념인데, 도시, 생활, 업무 공간에 환경과 조화로운 미술품 및 조형물을 컨셉부터 시작해서 도면설계, 기획 및 설치, 사후관리까지 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대개 입찰과정, 제안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진행한 명동 르메르디앙, 목시 호텔의 경우, 호텔 전반의 인테리어 상황에 걸맞는 미술품 설계부터 설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제안 PT 과정을 통해 당선된 작품인데도, 르 메르디앙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프랑스의 설계자에게 컨펌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작품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공간에 따라 리뉴얼하고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는 일이 또 다른 창작인지라 흥미롭습니다. 이 호텔은 객실 내 액자 포함해서 총 900점 가까운 작품을 계획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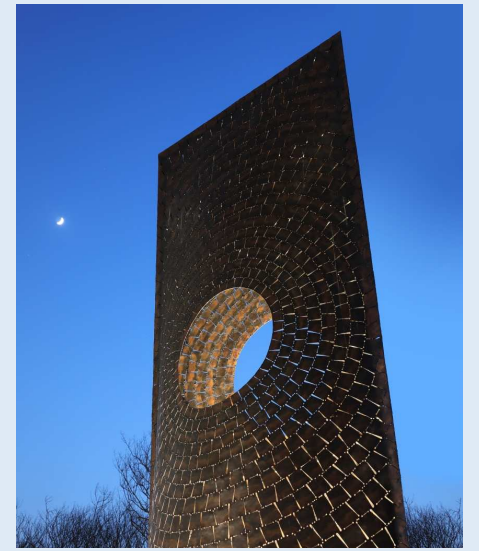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미디어월 조성, 홍경택 외 다수, 2015년~현재

KAN을 창립하게 된 계기와 'KAN'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회사를 만들게 된 것은 제 의도대로 일하기 위해서였고, 회사명은 2005년도 창업 당시 중국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만드는 것이 미술품 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을 아트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볼 간(看)'의 중국어 발음인 KAN으로 정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경영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주어진 일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것들을 하다보니 어느날 창업을 하게되었습니다. 늘 제 자신에게 가장 잘 맞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걸 찾으려고 했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했던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충흠작, 개포 프레지던스자이, 2022

김동문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주로 정부기관, 공공기관, 금융권, 지자체 등 보수적인 조직들과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큰 이슈는 아니지만, 주관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인해 그 조직의 수장들과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지만, 결정권자들의 의사결정 방식, 태도 등에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30대에 들어서야 일을 하게 되었던 제게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해나가는 방식이 어렵기도 했지만, 새로운 공부였던 것 같습니다.

동창회에 바라는 점과 기여하고 싶은 방향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이 많다고는 하지만, 입학생 인원수가 타 대학에 비해서 현저히 적고 그분들이 모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의외로 사회에서 동문을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보다 서로에게 활동을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서도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미래를 위한 조언을 한다면?

선대보다 후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은 아래 세대의 젊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시대의 방향, 문화적 경향을 늘 염두에 두고 한 보폭 넓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생존의 길이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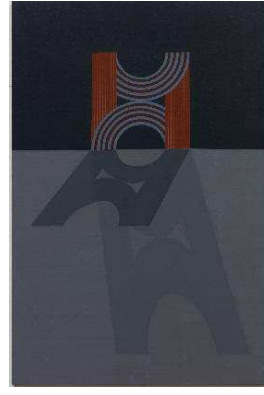


이재효 작, 서초그랑자이, 2020

김유숙 동문은 1987년도 모교 서양화과에 입학, 91년 졸업 후 동양화과로 편입해서 94년에 졸업했다. 95년에 대학원 미술이론 전공 입학하여 98년도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근대미술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해 회화,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현대미술의 장르로 확장해 왔다. 현재 미술품관리 전문회사 칸KAN을 19년째 운영 중이다. www.kanarts.com

이동훈미술상 본상 선정 김봉태(56회화)

김봉태 동문이 지난 8월 25일 제21회 이동훈미술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동훈미술상은 2003년에 제정 이후 매년 회화 조각·공예·판화·설치·미디어 등의 부문에서 충청권의 명망 있는 작가를 선정하여 수여되고 있다. 본상은 한국미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원로작가에게 수여된다. 김동문은 2차원과 3차원을 넘나드는 기하학적 조형과 밝고 화려한 색채를 통해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구축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63년 파리비엔날레에 출품한 바 있으며 같은 해 뉴욕에서 개최되는 국제조형미술협회 심포지엄에 초대된 것을



계기로 LA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1963~85년 그곳을 근거로 다양한 활동 및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한인미술가 협회장, 캘리포니아주립대 미술대학 교수와 베릴로미술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였고, 여러 공모전과 화랑을 통해 작품이 널리 알려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60~80년대의 '그림자' 연작, 80~90년대의 '비시원(非始源)' 연작, 2000년대 중후반의 '춤추는 상자' 연작 등이 있다. 2016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현대미술작가 시리즈의 하나로 100여 점 규모의 회고전을 연 바 있다.

KAIST 유희영아트홀 개관 및 특별전 유희영(58회화)

유희영 동문의 아트홀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생겼다. KAIST는 유동문의 기증 작품 특별전을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지난 9월 4일 개막했다. 내년 8월까지 공개되는 이번 특별전에는 KAIST가 소장한 유동문의 작품 총 25점 중 14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8월 유동문이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초빙석학교수로 임용된 후, 같은 해 10월에 기증한 20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유동문은 1962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회화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신세계백화점미술관(1977), 갤러리 에티엔 코정(1994, 파리), 월터위카이저 갤러리(1999, 뉴욕), '정신의 창으로서의 색면회화'(2003, 갤러리현대) 등 개인전을 개최했다. 국전에서 1회의 입선, 5여회의 특선, 1회의 대통령상, 1979년 국전 추천작가상 등을 수상했고, 2005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장 및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이자 KAIST 디지털인문사회과학부 초빙석학교수로 재임 중이다.

시화집 출간 및 KAIST 김인중홀 개관 김인중(59회화)

김인중(베드로·도미니코수도회 신부) 동문이 북한산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과 함께 시화집 '빛섬에 꽃비 내리거든'(파람북)을 펴냈다. 김동문은 원경 스님의 시 세계에 공감했고, 원경 스님은 김동문의 구도자적 삶에 존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시를 썼다. 책은 이런 두 사람의 종교 간 화합과 사상적 융합으로 빛을 발한다. 지난 8월 열린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김동문은 "백합꽃(가톨릭)과 연꽃(불교)은 같은 하늘 아래에서 핀다"며 두 종교가 일맥상통함을 말했



다. 한편 지난 9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김인중 동문의 공간을 마련했다. 김동문은 도서관 천장에 스테인드글라스 작품을 제작하면서 KAIST와 인연을 맺었다. KAIST는 빛과 색채의 거장 김동문을 산업디자인학과 초빙석학교수로 모셨고, 김동문은 초창기 회화와 도자기 등 80여 점을 학교에 기증했다. 발전재단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기증작품은 KAIST의 정식 소장품이 됐고, 현대미술에서 김동문의 위상을 고려해 전시 공간과 명칭이 정해졌다.

키아프, 프리즈에 동문 대거 참가

지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키아프(한국국제아트페어)와 프리즈아트페어가 두 번째 만남 '키아프리즈'를 가졌다.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인 이번 키아프리즈에는 손문자, 손희옥, 최진희, 김상경, 김춘수, 서용선, 김병중, 이혜민, 김덕용, 권용래, 박현주, 박영근, 정상곤, 안영나, 이정연, 김춘옥, 신수진, 차명희 동문 등이 키아프에 참가했으며, 손동현, 심문섭, 이강소 동문 등은 프리즈에도 참가하여 국내외 관객과 컬렉터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프리즈는 영국의 핑키하고 도전적인 '젊은 영국미술'을 집중적



으로 소개해 기존의 주요 아트페어와의 차별화를 노리며 출발했지만, 현재는 파워를 키울 수 있고 매출만 끌어올린다면 무엇이든 판매한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 예로 프리즈마스터스에 전시된 폴 세잔, 앙리 마티스 등 서양 모더니즘 거장들의 작품들이 있다. 한편 피터 해링턴의 희귀서적과 필사본을 선보인 부스는 관객들로 붐볐으며 문화재급의 캄보디아 신상을 선보인 독일화랑도 있었다. 이번 기간에는 전시뿐 아니라 프리즈 뮤직행사 등 작가와 관객을 위한 문화행사도 함께 열렸다.


후원광고

가슴을 치료하는 병원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

대림성모병원 유방센터






단국대병원에 '생명의 노래' 연작 기증 김병중(74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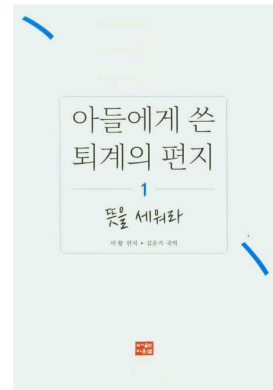
김병중(서울대 명예교수) 동문이 지난 6월에 단국대병원에 미술작품을 기증했다. 단국대병원은 지난 8월 17일 학교법인 단국학원 장충식 명예이사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김동문을 병원으로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병원이 기부 받은 작품은 김 화백의 신앙과 생명에 대한 경외를 담은 '생명의 노래' 연작 중 9점이다. 작품은 본관 입원동과 외래동 사이에 전시돼 있다. 김동문은 "환자의 전인적 치료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 그림이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



편 김동문은 서울, 파리, 시카고, 브뤼셀, 도쿄, 바젤 등지에서 수십 차례 개인전을 가진 바있다. 또한 국제 아트페어와 광주비엔날레, 베이징비엔날레, 인디아트리엔날레 등에 참여해 왔으며 수십 차례의 해외초청전시회를 거쳐, 대영박물관(런던)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때는 그의 작품이 증정되기도 했다.

아들에게 쓴 퇴계의 편지 김운기(78응미)

김운기 동문의 신간 '아들에게 쓴 퇴계의 편지' 1~3권이 지난 6월 22일 출간되었다. 이 책은 퇴계 이황이 아들에게 쓴 편지를 김동문이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퇴계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라, 퇴계 자신이 직접 아들에게 쓴 가공되지 않은 이야기를 담았다. 지금까지 퇴계의 학문과 사상에 관한 연구나 책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던 반면 개인적인 면모나 가정사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이 책을 통해 퇴계의 진솔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3권으로 나누어



출간된 이 책에는 퇴계가 아들에게 30년간 보낸 531통의 편지를 수록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전시기획과 건축설계를 해왔으며, 동단건축의 대표를 지냈다. 본업인 건축 외에도 동양고전과 한학에 대한 열정으로 30년 넘게 고서 발굴과 연구를 해왔다. 훈몽서 관련 국내 최대 장서 보유자이며, 언론을 통해 고서 관련 칼럼을 고정으로 써왔다. 공주대 대학원에서 퇴계 연구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울회 세미나 개최

한울회 세미나가 지난 9월 22일 모교 오디토리움에서 열렸다. 박덕실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부연 한울회장의 개회사와 정의철 모교학장의 축사에 이어서 본회 회장인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의 '국가건축 및 디자인정책의 현재와 미래'에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다. 박혜령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초청발표자 신미경 조각가가 '현재까지의 작업의 여정'을 발표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종미 전 고려대학교 교수가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을 발표하였다. 이후 순서로는 회원발표자로 신현경 영산대학교 명예교



수가 '한국의 여성 생태미술'이란 주제로 발표하였으며, 최진희 유리조형작가의 발표 '빛을 발하다'가 이어졌다. 또한 "반짝반짝 빛나는 후배들의 작품활동과 생각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한 시간이었 고 준비하신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는 김형주(66회화) 동문을 비롯해 여러분의 감사 후기가 있었다. 한편 이날 한울회는 정의철 학장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LVS 신용산점 오픈 이원주(85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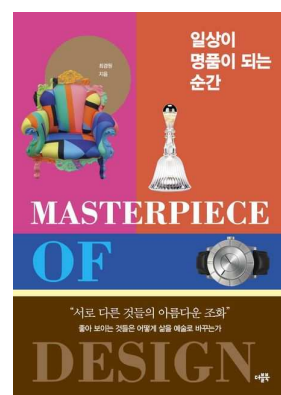
이원주 동문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아모레퍼시픽 본사 2F에 갤러리LVS 신용산점을 지난 9월 개관하였다. 갤러리 LVS 신용산점은 LVS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국내외 컨템포러리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곳으로 시각예술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 강연, 이벤트, 세미나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가능한 복합문화예술공간이다. 기획 및 대관행사를 통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초대하여 색다른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강남구 도산대로27길에 있는 갤러리 LVS는 한국의 문



화적 토양을 보다 단단히 다진다는 취지로 2008년 개관하였다. 다양한 기획전과 프로젝트를 통해 회화에서 미디어까지 폭넓은 장르의 근현대 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국내외의 역량 있는 신진작가를 발굴, 육성하는 지원사업을 강화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제 미술시장의 흐름을 선도하는 해외의 중견 및 거장의 작품을 국내에 소개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왔다.

일상이 명품이 되는 순간 최경원(86산미)

최경원 동문의 신간 '일상이 명품이 되는 순간'이 지난 9월 15일 출간됐다. 쉽게 읽히는 디자인 인문학저자인 최동문은 '일상이 명품이 되는 순간'에서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조화의 비밀들을 풍부한 사진 자료와 함께 친절하게 설명한다. 뛰어난 명품(Masterpiece of Design)들이 수많은 이들을 감동을 주며 주류 문화를 끌어가는 세계적인 추세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 책은, 디자인 명품 혹은 디자이너 이름을 낯설어하는 일반 독자들



도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쉽게 쓰였을 뿐 아니라, 의자·조명·식기 등 우리 주변의 각종 디자인에 대한 기본 감식안을 익힐 수 있도록 비평적 관점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모교 산업미술과에서 공업디자인을 전공한 최동문은 '현대디자인연구소' 대표로, 한국 문화를 현대화하는 디자인브랜드 '훗컬렉션'을 운영하고 있고, 모교, 연세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Good Design: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등이 있다.

불교미술의 시대정신 손문일(00동양) 외 1인

손문일 동문이 아버지 손연철 동국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쓴 책 '불교미술의 시대정신'이 지난 4월 14일에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의 미술사에서 그간 도외시되어 왔던 불교미술을 총망라함으로써 각 시대가 담고 있는 미적 기준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불교미술의 가치를 보여준다. 불교미술에 대한 단순한 열거가 아니라 우리 불교계의 문제와 미래 가치를 논함으로써 향후 불교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타 종교예술, 또 타국의 불교미술 및 미술교육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불교미술이 어떻게 전통을 계승하되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술의 생명력을 '시대정신'으로 보고, 시대정신을 담지한 불교미술의 발전을 염원한다. 한편 손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북경 중앙미술학원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중앙대 예술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서울과 북경, 베니스 등에서 7회의 개인전을 한 바 있으며, 스위스 제네바 및 중국의 다수 갤러리와 성곡미술관 등에서 단체전에 참가했다. 현재 장흥 가나아트레지던시에 입주해 있으며, 모교와 서울예술대, 성신여대에 출강 중이다.

제57회 한국화회전 한영옥(58회화) 외 51인

제57회 한국화회 전시가 지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삼청동 한백원미술관에 열렸다. 한국화회는 1967년 기존화단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양식을 모색한 전위적 청년화가들의 모임으로서 신문회관 화랑에서 첫 번째 전시를 열었다. 그 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한국화회는 한국화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7회 한국화회전은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며 전통과 현대의 형식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전시에는 한영옥, 정정자, 홍정희, 조은경, 김춘옥, 황인혜, 박소영, 이민주, 박소현



허진, 이인애, 김성희, 신하순, 강재희, 이기영, 류인선, 박민희, 김선영, 송근영, 이주원, 신영호, 이광수, 권기범, 서기환, 박소영, 송윤주, 윤기언, 조인호, 민동기, 선호준, 손문일, 정성윤, 박소연, 임현경, 강호성, 이윤진, 김초윤, 이혜진, 정해나, 송수연, 조해리, 김지훈, 김종규, 김지수, 김유정, 김현정, 김하윤, 박현정, 정재원, 소미정, 주낙준, 김민경 동문 등이 참여했다.

이경자 초대전 이경자(59회화)

이경자 동문의 초대 기획전이 오는 10월 5일부터 10월 22일까지 광진구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동문은 지난 수십 년간 습지대의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야습관조(野濕觀照·들에서 습지대를 보고 사유함)' 시리즈를 작업 해왔다. 이번 전시에는 그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습지대에서 빛어지는 나무, 풀잎, 구름과 늪 생물들의 화려한 하모니를 순지 및 순지에 옷칠을 가미한 종이에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2022년에 분당서울대병원, 2018년에 세종갤러리, 2017년과 2004년에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2007년에 토포하우스, 1980~2000년에 현대아트갤러리 등에서 10여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내 및 해외 단체전에 다수 참여하였으며, 바젤, 비엔나, 파리, 런던, 제네바, 타이베이 등 국제 아트페어에 15회 출품하였다. 이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월전미술관, 한일은행, 분당서울대병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신자, 실로 그리다 이신자(61회화)

이신자 동문의 회고전 '이신자, 실로 그리다'가 지난 9월 22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작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이동문의 삶의 여정과 한국 섬유예술의 변천사가 고스란히 담겨 한국 현대공예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동문은 밀 포대, 방충망, 벽지, 종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재료들이 지닌 풍부한 질감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 그에 합당한 표현 기



법과 새로운 조형 실험을 통해 섬유예술을 새로운 예술 영역으로 승화시켰다. 이동문이 평생 천착해 온 태피스트리는 날실(경사, 세로줄)을 캔버스에 두고 씨실(위사, 가로줄)이 붓이 되어 씨실의 색상만으로 표면에 무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한편, 이동문은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한국 현대공예를 대표하는 1세대 섬유공예가이자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해 온 교육자이다.

Autonomous Abstraction 박재호(59회화)

박재호 동문의 '자율추상 Autonomous Abstraction' 전시 오는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다. 회고전의 성격을 띤 이번 전시회는 박동문의 시기별 대표작을 선정하여 일생의 화업을 총정리한다. 박동문의 작품은 그의 삶에 밀착한 추상화로서 시기에 따라 몽환적 이미지와 색면추상적 요소들이 그만의 심미안으로 지속적 변화와 승화의 과정을 거쳐 표현되어 왔다. 침묵, 송고, 무한성 같은 형이상학의 향취 위에 강렬하고 큰 붓질 또는 섬세하고 날카로운 붓질로 그린 자유분방한 내면세계가 교차된다. 기



하학적 추상이나 모듈의 반복적 이미지가 중첩되던 초 중기의 화면이 최근의 매우 절제된 색채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번 전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동덕여대 교수를 거쳐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을 역임하였다. 1981년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였고 인도 트리엔날레 국제초대전 등 국내외 주요 단체전에 초대되었으며 육조근정훈장 서훈을 수상하기도 했다.

후원광고

Park Jaeho

자율 추상 박재호

2023.10.20 - 10.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5관 (월요일 휴관)
Opening 2023.10.20 PM 4:00

Autonomous Abstraction



심리학적 풍경 김희자(66회화)

김희자 동문의 개인전 '심리학적 풍경-나무의 영혼을 찬미하다'가 지난 6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영은미술관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자연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읽어내고 회화 작품으로 이를 전한다. 숲속의 나무는 고유의 '결'에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을 기록하고 간직한다. 김동문은 이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을 담아 드로잉을 한다. 여기에 나무를 자르고 이어 붙이는 입체 구조물을 더해 그 이야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



든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1997년 초청작가로 미국으로 이주했다. 2020년 한국의 영은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하기 전까지 25년간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 미국의 롱아일랜드에서 생활했다. 이곳에서 역설적이게도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그때 집 앞에 자리한 바다, 자연, 나무에게서 많은 위안을 받았고 그러한 경험이 작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최남진 조각전 최남진(66조소)

최남진 동문의 전시 '최남진 조각전'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6일까지 김세종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생명을 포용한 존재 형식으로서의 초기 작품과 이후 기독교적인 영성을 담은 도조 작업 '삶을 위한 기도' 그리고 2010년 이후 최근까지 생명과 영성의 관계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비전' 작업 등 인간의 존재 형식에 대한 성찰로서의 조각 작품을 선보였다. 최동문의 작업에서 생명성은 안과 밖의 공간이 곡면을 통해 만나는 공간에 대한 추구로 형태화된다. 그러한 투조(透彫) 공간은 뫼비우스의 띠처럼 바깥의 공간이 곧 안으



로 이어지고 안의 형태가 외부로 흐르는 연속적 관계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무한의 형태가 잠재적으로 잉태하는 이러한 공간은 형태의 매트릭스(matrix)이자 코라(khora)의 공간이며 최동문이 추구해 온 주제를 반영하는 영성의 공간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1968년 대학 재학 시절 '국전'에 입선하며 본격적으로 조각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1987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총 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2년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행복이 열리는 나무 안말환(76회화)

안말환 동문 초대전 '행복이 열리는 나무'전이 양재동 갤러리작에서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서 안동문은 삶에 지친 모두가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자 했다. 나무들의 대화로 형상화한 숲의 풍경은 이상적인 따스함으로 충만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 희망, 용기를 주고 싶어 하는 안동문의 의지가 담겨 있다. 작가는 두툽한 질감이 느껴지는 '마티에르' 기법의 소유자로도 유명하다. 자연물인 돌가루와 다양한 재료의 혼



합으로, 복잡한 나무를 절제된 색채와 나이프, 못 등으로 긁어 만든 선으로 표현한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했으며 서울, 부산, 대구, 중국, 미국, 독일 등지에서 50여 회의 개인전을 했고 국내외 아트페어와 단체전에도 꾸준히 참가해 왔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제18회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개최 한근석(81응미)

한근석 동문이 대표로 있는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이 오는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Welcome to Gwanghwamun'이라는 타이틀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광화문 일대에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은 매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시 유일의 비영리 전문 미술축제이다. 제18회를 맞이하는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은 3부로 나뉘어 열린다. 1부는 기성작가와 아시아현대미술 청년작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작가 8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의 전시 '현대미술전'이 열린다. 2부에서는 (사)한국기초조형학회 주관으로



400여 명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초대전 'On Board'가 열리고 3부에서는 'Focus', 2023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유희승(평면-한국화) 신용준(입체-목공예) 수상전시가 광화문아트포럼 회원전과 함께 열린다. 이번 행사의 사전 연계프로그램으로는 유근호 평론가의 사회로 수상 작가들의 발표를 포함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된다.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의 모든 전시와 연계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iaf.or.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후원광고

Welcome to GwangHwaMun

세종미술관/광화문광장
공식 온라인 플랫폼 www.giaf.or.kr
11.02 - 11.21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아시아 현대미술 청년작가공모전
올해의 작가 신용준-입체/유희승-평면
한국기초조형학회국제초대전
시민 대상 세종 미술축제 공모전
광화문사랑 서울사랑 어린이 그리기 대회

주최, 주관 광화문국제아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후원, 협찬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종로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서울미술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한국기초조형학회

찰나-물, 흐르다 김수학(77조소)

김수학 동문의 조각전이 김해문화재단 웰컴레지던시에서 지난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동문은 10여 년간 탐구해 온 물의 찰나와 유동성을 주제로 한 알루미늄 조각 작품 35점을 선보인다. 격류, 거대한 물줄기, 물의 표정 등 물의 움직임과 에너지를 조각으로 승화시킨 독특한 작품들은 마치 한데 모여 떨어지는 폭포의 물기둥이나 용틀임하듯 거세게 흐르는 강줄기 모습을 연상케 한다. 김동문은 알루미늄과 크롬 용액 코팅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을 주재료로 사용해 변화무쌍하면서도 투명하고 광대한 힘을 지닌 물의 물성과 속성을 조각에 담았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일본 국립규슈대 예술공과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다수 개인전을 비롯해 2008년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과 2013년 강원 평창비엔날레 초대작가 등 왕성한

Through the Glass 이지희(80회화)

이지희 동문의 개인전 'Through the Glass'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한양여대 스퀘어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유리창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안'과 '밖' 그리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선인 창 그 자체에 대해 사유한다. 경계선은 내부라고 하기도 어렵고 외부라고 정의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공간이며 순환적인 자연의 공간이나 시간을 부분으로 구획 짓는 것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아무리 인위적인 단위로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영속적인 시공간은 커다란 의미에서 나뉘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내부와 외부 공간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경계와 내부와 외부가 영커 있는 모호한 공간들이 서로 순환하며 자유롭게 두 곳이 연결되는 하나의 개방된 열린 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회화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New York University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숭실대학교 미디어학과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퍼즐 피플 플레이'(앤드앤갤러리, 서울, 2016) 등 17회의 개인전을 미국과 한국에서 개최했고,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현재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_Land 김유주(80응미)

김유주 동문과 Judith Trepp 작가의 전시 'I_Land'가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취리히의 Lechbinska 갤러리에서 열렸다. 본 전시는 한 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국, 스위스 작가 2인 전으로 기획되었다. Judith Trepp은 린넨과 종이를 주로 이용하여 간결한 선과 화면의 빈 공간의 '관계'에 집중하는 섬세하고 동양적인 회화작업을 선보인다. 재료에 천착하는 도자조형작업을 해 온 김동문은 관계의 정의를 완성되



지는 사이의 장소로서 섬을 묘사한 정현종 시인의 "섬"에서 따온 것이다.

지 않은 '사이'에서 찾는다. 두 가지 이질적인 재료가 소성 중 서로 상충하고 화합하는 과정을 실험한 'Migration', 人자를 모티프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생각을 풀어낸 'Nexus'를 전시한다. 전시 제목은, 사람 간의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는 사이의 장소로서 섬을 묘사한 정현종 시인의 "섬"에서 따온 것이다.

ZERO MASS K & I 2023 하수경(70회화) 외 13인

오는 10월 1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갤러리에서 한국 인도 수교 50주년 기념전시회가 열린다. 하수경, 박소영(73회화), 이민주, 이은숙, 전성규, 민수정, 지원진, 신하순, 송근영, 조은령, 류지선, 박소영(92동양), 송윤주, 김명은 동문 등이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 인도 현대작가교류회(KICAA)가 주최한다. KICAA는 2002년 재서울인도박물관 김양식(타고르협회 회장) 관장의 후원으로 황만영, 송형근과 인도의 아카데미 오브 비주얼 미디어 그룹의 깔리차란굽타, 니렌센 굽타 등이 공동으로 창립하여 뉴델리에서 제 1회 전



한국, 인도 회원들의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시회를 개최한 이래로 한국과 인도의 주요 도시인 서울, 뉴델리, 부산, 자이푸르, 대전 등에서 워크숍, 정기교류전,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민주 동문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광화문아트페스티벌, 공주국제비엔날레, 인도박물관, 글로벌아트페어 싱가포르, 자이푸르아트써밋 및 양국의 주요 전시장, 박물관, 대학과 연계하여 정기교류전과 아트캠프 외에도






Exchange Exhibition to Celebrate the 50th Anniversary of Korea-India Diplomatic Relations

“Zero mass K&I 2023”

17th October (Tue)-29th October (Sun), 2023
Opening 20th October (Fri), 5-6 pm
Seoul Metropolitan Council, Central Hall Gallery 중구세종대로 125(2180-8000~5)

* Reciting poetry - Ph.D. Soon Hwang, Tagore

KOREAN ARTISTS

황만영, 송형근, 김경화, 김일권, 송윤주, 조기주, 김보연, 김창래, 노신경, 류지선, 박기웅, 박능생, 박소영1, 박소영2, 송근영, 신하순, 이민주, 이석규, 이세정, 이용석, 이은숙, 오영숙, 전성규, 지원진, 하수경, 하연수, 홍미림, 이정원, 민수정, 김명은, 조은령, 이승은



INDIAN ARTISTS

Niren Sen Gupta, Bheem Malhotra, S.K Sahni, Jai Zharotia, Kalicharan Gupta, Shobha Broota, Shovin Bhattacharjee, Vinay Sharma, Meena Deora, Rashmi Khurana, Suchisusmita Sahoo, Dr.Vidhyasagar Upadhyay, Akash Choyal, Santosh Kumar Verma, Hem Raj, John Philippose

후원광고

Infinity 신한철(81주소)

신한철 동문의 개인전이 여주미술관에서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조각인 전쟁기념관 6.25 상징조형물을 설치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는 신동문은 '무한 구체'라고 불리는 스틸 구체들이 집적된 대형작품을 선보인다. 신동문의 작업에서 거울효과를 가진 구체들이 연결되어 끝없이 서로를 비출 때 만들어지는 무한한 공간은 광활한 우주적 공간에 비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구체들과 이에 반영되는 '나'는 소우주라는 동양적 우



주관을 담고 있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서울국제조각페스타, 이천조각국제심포지엄, 창원조각비엔날레, 포항아트페스티벌, 한중일조각전 등 유수의 국제전에 참여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Hemyeong 김성희(82회화)

김성희 동문의 개인전이 런던 메이페어 본햄스 본사에 초청돼 오는 10월 7일에서 13일까지 개최된다. 프리즈 런던이 열리는 시기로, 한국 작가가 본햄스에서 전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동문은 설명했다. 김동문은 긴 장섬유로 된 한지에 먹과 천연염료를 스미게 하고, 다시 한지 위에 선을 긋거나 채색하는 방법으로 작업하고 있다. 그는 한국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순수한 전통기법과 재료를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주제의식과 표현으로 발전시켜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이 오랫동안 작업해 온 '별 난 이야



기(Constellation Links) 가 자연(Nature)과 인간(Human)의 두 개의 카테고리 나뉘어 진행된다. 두 개의 카테고리로부터 분화된 '투명 인간(Transparenter) 연작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동문은 "신작을 포함해 그동안 작업해 온 대표작들을 소개할 예정"이라면서 "영상으로 재해석한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문은 제5대 서울대학교미술관 관장과 모교 학장을 지냈다.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Quest 김봉중(84서양)

김봉중 동문의 개인전 'Quest'가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뉴욕 One Art Space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 기계적인 것과 유기적인 것들의 구분과 조화, 공존을 의식하며,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된 지 오래된 포스트휴먼 컨디션과 이를 둘러싼 관계성에 집중하는 추상작가이다. 김동문은 애정과 관심을 받다가 버려진 물건들을 주위 작품 위에 놓는다. 이 물건들이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개체들과 어우러져



서 예술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은 유혹과 중독에서 나와 치유와 하모니에 닿고자 하는 이야기의 반증이라고 말한다. 김동문은 그의 작품처럼 인간의 삶도 조화 속 작은 부분이 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90년대에 미국으로 향했다. 그는 뉴욕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림의 떡 김형민(89동양)

김형민 동문의 개인전 '그림의 떡'이 지난 9월 6일부터 19일까지 지아트갤러리에서 열렸다. 떡은 음식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맥락에 따라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떡값', '떡고물'은 서로 떡을 나누어 먹던 사회적 맥락을 보여주는 표현이고, '떡 치다'는 묘한 어감과 통속적인 이야기를 담은 표현이다. '이번 개인전의 제목 '그림의 떡'은 '혼밥'의 시대가 된 오늘 다시 한 번 떡이 지닌 의미들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어나 신장개업 또는 결혼이나 돌잔치 등 이웃과 손님에게 돌렸던 떡은 나눔의 문화를 상징했다. 혼밥족과 1인 가족



이 늘어나며 떡을 직접 지어먹는 가정은 극히 소수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주의 확장으로 인한 현대인들의 공허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김동문은 말한다. 그는 전시 '그림의 떡'을 통해 떡은 있되 나눔이 없는 현대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작가노트를 통해 밝혔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졸업하고 가천대 대학원 미술치료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욕망의 역설 김호준(92서양)

김호준 동문의 초대전 '욕망의 역설'이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도화현미술관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자연과의 교감으로부터 얻어낸 생명의 이미지들에서 생명을 본질을 탐색한다. 식물과 산, 바람, 물과 같은 자연의 세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파장을 캔버스 위에 한 꺼풀씩 풀어내 강렬한 색채로 표현했다. 그는 '욕망의 역설'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여성의 인체와 식물, 동물 등을 혼합한 다양한 인물화를 통해 인간의 감추어지고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 보여준다. 다양한 꽃과 나무, 곤충, 동물을 변형한 이미지는 자연의 생성적인 힘을 표현



한다. 이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여성의 나체는 자연의 순수함을 드러낸다. 김동문은 이를 통해 도시화되고 기계화된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감각과 촉감, 풍요로움, 향기, 소리 등의 원시적인 감각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이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내일갤러리(2020, 서울), 아트스페이스 쉼리아(2018, 2017 서울)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을 개최했다.

유어산수 遊於山水 박소영(92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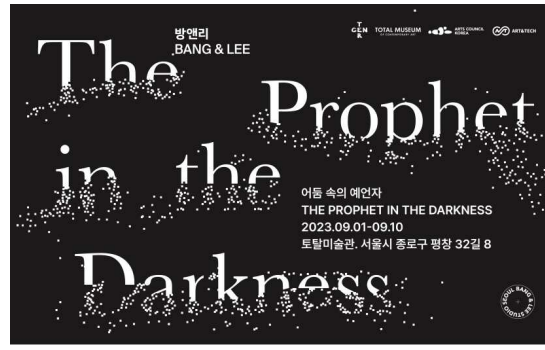
박소영 동문의 개인전 '유어산수 遊於山水'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압구정 갤러리컬린에서 열렸다. 박동문은 야외를 거닐면서 받았던 영감을 바탕으로 자연과 우주에 대한 명상과 사색을 작품에 지속적으로 담아내 왔다. 그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공간을 구름과 하늘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동양의 성리학적 철학에 바탕으로 두고 있는 식물들을 자연의 은유적 상징으로 등장시켜 자연과 벗하여 소요유(逍遙遊)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보았다"고 작품을 설명한다. 그의 작업은 물질주의적 현대사회에서 내면을 성찰할 여유를 잃



은 현대인들에게 명상과 사색을 상기함으로써 삶의 균형을 일깨운다. 이번 전시에는 박동문의 작품과 콜라보를 이룬 '오랜'의 가구들도 함께 전시되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2022년까지 17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동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대학교미술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어둠 속의 예언자 이윤준(93서양) 외

이윤준 동문과 방자영 작가 2인 체제 아티스트 듀오 '방앤리'의 전시 '어둠 속의 예언자'가 지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열렸다. '어둠 속의 예언자'는 뉴로모픽 공학을 연구하는 박종길 공학박사(KIST선임연구원)와의 대화에서 출발한 전시다. 방앤리와 박종길 박사는 'AVS artist view science 과학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시선: 내추럴 레플리카(2023, 김희수아트센터)를 계기로 작품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틀을 강화했다. 전시는 디지털 휴먼으로 제작된 AI 예언자의 청문회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재현



하는 새로운 시간의 개념을 비롯해 과학기술 윤리와 딜레마, 다양한 영역에 걸친 기술의 영향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을 촉발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후 2006년에 문학을 전공한 방자영 작가와 듀오 '방앤리'를 결성했다. 방앤리는 독일 카를스루에의 ZKM 미디어아트센터에서 다양한 미디어아티스트와 작업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2년부터 국내 활동을 해오고 있다.

선으로 삶을 짓다 김주환(93조소)

김주환 동문의 전시 '선으로 삶을 짓다'가 지난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용산해방촌 신흥시장 앞 작은 건물에서 열렸다. 김동문은 건축 공사장에서 주로 쓰이는 굵은 철선을 뜨개질하듯 한 땀 한 땀 용접으로 녹여 만든 면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김동문은 형상을 조각하기 보다는, 철선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상상의 연금술로 치환하여 깨달음의 과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다. 구도적인 자세로 진실을 표현해 온 김동문이 이번에는 시골생활에서 수집한 죽은 나무를 재생한 작업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철 작업과 새로운 나무



작업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첫 기회였다. 전시장이 아닌 일반 건물에서 전시를 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건축가인 친구가 재생한 건물에 자연을 재생한 김동문의 작업이 어우러져,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지어 왔음에도 삶이란 서로 이어져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한편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2020년 김종영미술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어 '혼방된 상상력의 한 형태'전을 개최한 바 있다. 김동문은 올해로 18년째 황성군 하대리에서 작업 중이다.

불안의 장식 최병진(94서양)

최병진 동문의 개인전 '불안의 장식'이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렸다. 최동문이 이번 전시에서 보여준 일련의 초상화들은 첫째로 기하학 구조물의 모델링, 둘째로 '장식'의 해석과 표현이라는 두 가지의 시각적 표현의 실현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 김동문에게 기하학적 초상화는 '나'란 물건에 대한 존재의 궁금증에 대한 미완의 답이다. 초상화의 기하학적 형태에는 진화를 통해 획득한 현재의 형태 그리고 멈추지 않는 '변화의 작용'이라는 '나'의 두 가지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고민이 담겨있다. 화면에서 기하



학 구조물과 피부가 상호작용을 하며 김동문 작업의 두 번째 요소 '장식'의 해석과 표현이 드러난다. 끊임 없이 외부와 반응하고 변화하는 신체는 '선택'을 통해 미묘한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신체'만의 매력적인 껍데기, 즉 '장식'을 만든다. 이 장식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도 은유도 없는 생명의 증거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6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그의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Burning symmetry 양현모(06서양)

양현모 동문의 개인전 'Burning symmetry'가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7일까지 로이갤러리에서 열렸다. 양동문은 시지각의 작용과 그 작용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번 전시는 대칭을 단위 삼아 만든 이미지를 통해 흐릿함과 견고함이라는 대척의 개념이 허물어지며 서로의 의미가 교차하는 지점을 살핀다. 특히 견고한 형상, 부드러운 형상, 흐릿한 형상으로 이어지는 그리기의 과정을 토대로 대칭에 관한 순차적인 고찰을 조망한다. '버닝 시메트



리'로 귀결되는 이번 작업은 자기 참조의 시도로써 이전 작업의 개념을 '뒹어쓰기'하듯 연속되는 세계를 파생시켜 나간다. 또한 단순한 명도의 대조를 넘어 회화의 조형성, 평면성, 촉각성에 관한 탐구를 녹여내고, 반대 개념의 대척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반대항을 만드는 근거와 그 사이의 균형을 살핀다는 점에서 촘촘해진 그의 고찰을 반영한다. 한편 양동문은 2021년, 2019년에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다.

방화광 윤미류 (16서양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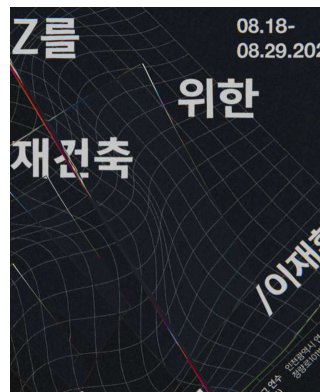
윤미류 동문의 개인전 '방화광'이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24일까지 SEMA창고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은 구체적 인물의 형상을 빌린 회화 작업을 통해 '방화광'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인 허구적 캐릭터들이 환기하는 사적이고 추상적인 감각을 펼쳐보는 전시이다. 윤동문은 마치 '방화광'이 종잇조각에 작게 불을 붙여 큰불을 피우듯 실제 인물에게서 발견한 작은 단서에 상상의 불씨를 피워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고, 그 안에서 모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만드는 내러티브로 허구적 이미지를 구축한다. 윤동문에게 실제의 인물은 작가의 감각을 자극하는 매개체이자, 창조된 서사를 시각화하는 매개체로 그는 이들을 통해 전통적 매체인 회화에서 새로운 서사 형식의 가능성을 실험한다. 한편 윤동문은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천예술공장에서 입주작가(2023)로 작업하고 있다. '더비 매치: 감시자와 스파이(2023) 등의 단체전에도 참여했다.

Z를 위한 재건축 이재환(16동양)

이재환 동문의 개인전 'Z를 위한 재건축'이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인천연수구 '아트플러그 연수'에서 열렸다. 이동문은 코로나19에 군 생활까지 겹친 가운데 느낀 '실체적 공간'에서의 해방 욕구를 작품에서의 실험적 표현으로 승화했다. 그 중 4점의 작품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을 만났다. 그가 실험적 표현을 통해 작품에 담은 것은 '군인에서 작가가 되는 과정'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 그리고 '작가로서 삶의 지속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는 2020년 군생활을 회상하며 그 당시 군 집단에서 느낀 '해방 욕구'는 "작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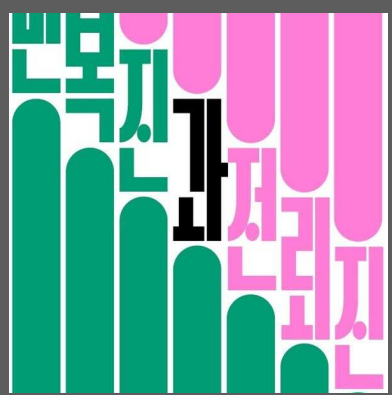
서의 자아가 소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가로서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 미술계에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개념, 공간, 크기 등에 대한 망상적 질문을 던지고, 그 개념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실험적 사고를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함을 통해 그림을 그려나가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후 경원재단 레지던시 소속 작가로 활동 중이다.

10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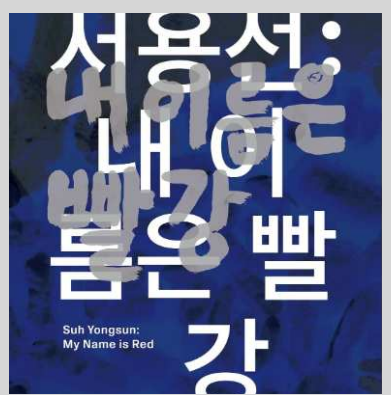
화필인생

박노수(46회화,1927-2013)
5.26-2024.3.31
박노수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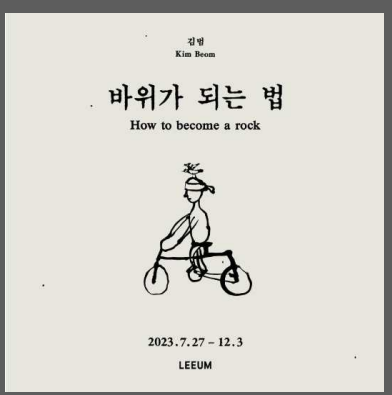
민복진과 전뢰진

전뢰진(49응미) 외 1명
6.20-2024.1.21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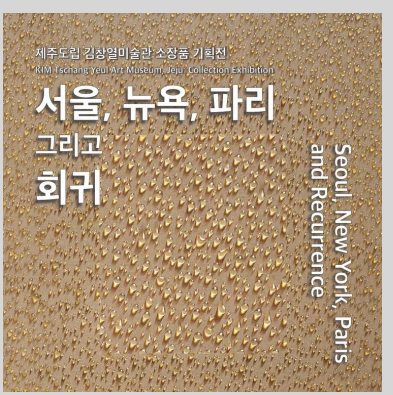
내 이름은 빨강

서용선(75회화)
7.15-10.22
아트선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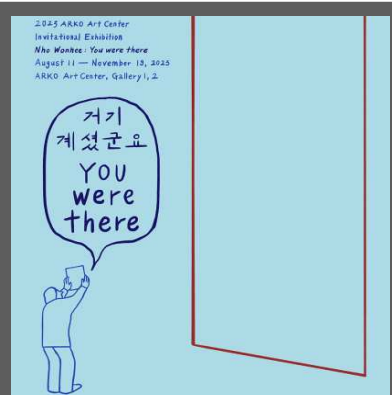
바위가 되는 법

김범(82회화)
7.27-12.3
리움미술관



서울, 뉴욕, 파리 그리고 회귀

김창열(48회화)
8.1-12.3
제주도립김창열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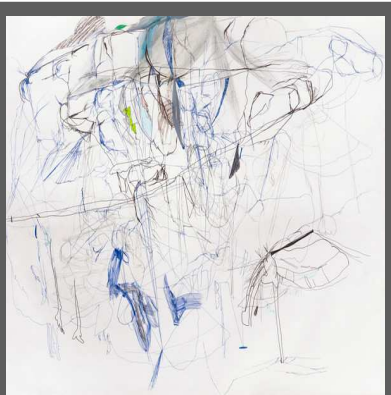
거기 계셨군요

노원희(66회화)
8.11-11.19
아르코미술관



투명한 공간, 사이 거닐기

고명근(83조소)
8.30-11.12
사비나미술관



모든 순간을 위한 몸짓

박햇살(03서양) 외 3명
9.3-10.22
산청박물관



무한공간

정보원(65조소)
9.4-10.7
표갤러리



아워세트: 레벨라인X손동현

손동현(98동양)
9.5-12.17
수원시립미술관



춤과 노래

박제성(91조소)
9.8-10.21
갤러리퍼플



아이스크림 밀어 넣기

이희단(15서양) 외 4명
9.9-10.8
을지로오브



장욱진회고전

장욱진(교원/1917-1990)
9.14-24.2.12
국립현대미술관덕수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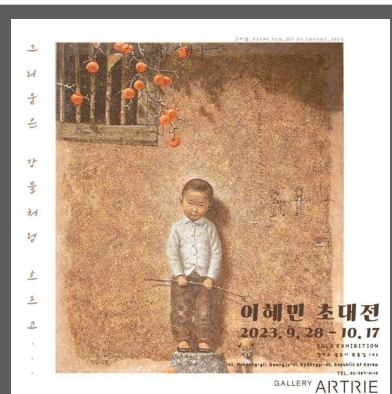
연우然愚

최충웅(57조소)
9.19-10.18
노원아트갤러리



Waltz for Silence

허진(81회화)
9.21-10.14
아트레온 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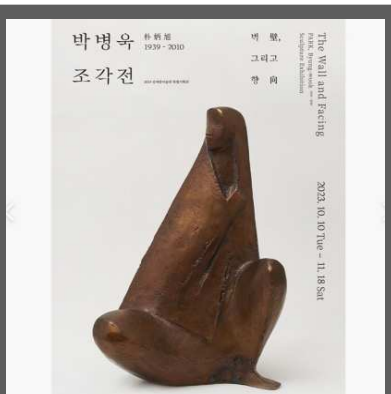
이혜민초대전

이혜민(74응미)
9.28-10.17
갤러리아트리에



이경자 초대기획전

이경자(57회화)
10.5-10.22
세종뮤지엄갤러리



벽 그리고 향

박병욱(58조소)
10.10-11.18
김세중미술관



자율 추상

박재호(59회화)
10.20-10.30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3층 5관



원본 없는 판타지

임현하(석21서양)외 3명
10.25-11.12
/은 /수 /공 /간 2층